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

서정섭(서남대학교)

1. 들머리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당선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당선인’과 ‘당선자’의 혼용 과정을 통하여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자’와 ‘-인’에 대한 언중들의 언어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 지칭 한자어 접미사를 바꾸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

- (1) 장애자 → 장애인, 장애우 / 탈북자 → 새터민 / 노동자 → 근로자 / 운전수 → 운전사, 기사 / 간호원 → 간호사 / 식모 → 가정부 / 광부 → 광원 / 청소부 → 환경미화원 / 구두닦이 → 미화원

이러한 현상은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에 대한 언중들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장애자라고 할 때는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바뀌 부르고 있다. 장애자도 그 이전에는 불구자라고 하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안이 통과되어 법적으로 장애자라고 지칭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우는 1인칭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부적합하고,

고령자를 표현하기 부적합하여 공식적인 어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는 2005년 통일부가 탈북자라는 말 대신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생긴 신조어이다. 운전수는 일본어투 한자어라고 하여 운전사, 운전기사로 바꿨다. 이처럼 어휘를 새롭게 바꾼 예들은 부정적, 비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중립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간호사와 광원처럼 접미사만 바꾼 경우도 있다. 어휘 자체의 의미이든 아니면 접미사에 따른 의미가치의 부여이든간에 어휘와 사람 관련 접미사에 대한 언중들의 언어의식을 엿볼 수 있다.

명칭 바꾸기 현상은 사회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어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점의 간판을 보면 이런 현상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명칭 바꾸기 현상은 종전의 연상의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고품격화, 격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상위범주의 어휘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2) 가구점 → 가구갤러리, 가구백화점
- 건강원 → 건강관리원
- 고물상 → 녹색환경자원, 자원상사
- 골프연습장 → 골프교실, 골프아카데미, 골프클리닉, 골프클럽
- 골동품상 → 민속관
- 미장원 → 미용실, 헤어디자인실
- 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복덕방 →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경제연구원, 부동산갤러리
- 사진관 → 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포토랜드, 사진연구실
- 산부인과 → 여성의원
- 장례식장 → 장례문화원

이러한 명칭 바꾸기 현상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비일반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농과대학, 가정대학에서 학교 명칭이나 학과 명칭을 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의 증폭으로 변신하려는 욕구의 일면이 명칭 바꾸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결과 명칭의 인플레이, 명칭의 과대 포장이란 부작용도 낳고 있다.

(3) 동사무소 → 주민센터

농업고등학교 →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 정보미디어고등학교

농과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자원과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산림과학과, 생물시스템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가정대 → 생활과학대학 / 주거환경학과

도서관학과 → 문헌정보학과

사람 관련 접미사의 연구는 고유어 접미사와 한자어 접미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이, -개, -장이, -보, -꾼’ 등 사람 관련 고유어 접미사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주로 ‘-가(家), -자(者), -사(師), -수(手)’에 집중되어 있지만 소개하는 정도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인데, 각각의 접미사가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지는 듯하나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만 지적하였다.

그런데 노명희(2005)에서는 명사성 접미한자어 중 사람 관련 접미한자어라고 하여 ‘-자(者), -가(家)’류, ‘-수(手), -사(師)’류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者), -가(家)’류 접미한자어는 여기서 명사인 경우와 어근인 경우로 나눠 살펴보았다. ‘-자(者)’는 주로 동작성 명사를 어기로 취할 때 생산적이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반면 ‘-가(家)’는 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직업성], [+전문성] 또는 [+반복성]의 의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수(手), -사(師), -사(士)’는 ‘-자(者), -가(家)’와 의미나 기능이 비슷한 면이 많지만 최근에 생성되는 신어에는 잘 쓰이지 않는 비생산적인 접미한자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접미한자어가 취할 수 있는 어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手), -사(師), -사(士)’ 등이 담당하던 기능을 ‘-자(者), -가(家)’가 나

뒤 가짐으로써 이들의 쓰임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 -자(者), -인(人)’의 의미특성과 현대국어에서의 생산성과 사람 관련 접미사에 대한 언중의 언어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접미사 의미 형성 과정

사람 관련 접미사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직업명으로도 쓰인다. 현대국어에서 사람 관련 접미사가 쓰이게 된 과정에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에는 접미사의 핵심의미로 쓰이게 되는 설정단계이다. 설정단계에서는 접미사가 사용되는 최초의 핵심 단어가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접미사 ‘-자(者)’의 경우, 최초의 핵심 단어는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와 같이 고대 중국의 한자어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에서 사람 관련 접미사 ‘자(者)’의 의미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이후 새로운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접미사의 의미가 고정화 단계를 거친다. 접미사 ‘-자(者)’가 문학자, 교육자, 논쟁자, 계몽주의자 등의 단어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문가의 의미를 고정화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의미의 고정화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는 과정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변형 단계로 현대국어의 쓰임 과정이다. 접미사 ‘-자(者)’가 ‘놈 자’로 인식되면서 [+비하]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인(人)’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단계는 (4)와 같다.

- (4) ① 설정단계 - 최초의 핵심 단어
- ② 고정단계 - 신어 형성으로 의미 고정화
- ③ 확장단계 - 의미 확장, 변형 단계 - 현대어의 쓰임으로 확대

3. 사람 관련 접미사와 직업명 접미사

3.1. ‘-가(家)’의 특성과 의미

접미사 ‘-가(家)’에 대한 국어사전¹⁾에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5) 가(家) (일부 명사 뒤에 붙어)

1.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건축가, 교육가, 문학가, 작곡가, 평론가.
2.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외교가, 이론가, 전략가, 전술가.
3.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자본가, 장서가.
4. ‘그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대식가, 명망가, 애연가.

‘-가(家)’에 대한 국어사전의 분석은 노명희(2005)의 분석인 [+전문성], [+직업] / [+능력] / [+풍부]로 의미를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

‘-가(家)’가 [+전문성], [+직업] / [+능력] / [+풍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한자 가(家)의 형성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家)는 회의(會意)문자로 한자 형성법인 육서(六書) 중의 하나이다. 회의문자는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고 그 뜻도 합성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일(日)’과 ‘월(月)’을 합하여 ‘명(明)’ 자를 만들어 ‘밝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가(家)는 집 면(宀) 밑에 돼지 시(豕)를 한 글자이다. 원래 가(家)는 돼지의 집이란 뜻이었으나, 돼지새끼가 많다는 데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집이란 뜻이 되었다. 즉 옛날 중국의 집에서는 위층은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돼지를 기르는 2층 형태의 가옥이었다. 돼지는 사람과 함께 살 정도로 귀한 가축으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은 돼지가 있는 집이었는데, 여기에서 돼지새끼들이 무리를 지어 많이 있으므로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집단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참조.

을 이루는 가문이나 학파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면 그 중에서 유능한, 특출난, 능력 있는 인물이 나오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재능을 유지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집을 나타내는 실질명사 가(家)가 [+전문성]의 의미를 갖는 사람 관련 파생 접미사 ‘-가(家)’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 있는 어휘 중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에서 집을 나타내는 의미를 제외하고, 사람이나 직업의 종사자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쓰인 것은 약 268 단어이다. 268개의 ‘-가(家)’ 접미사 단어 중 현대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언중의 언어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단어 사용의 비중이 달라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의 단어들이 그러하다.

(6) 감여가(堪輿家), 건담가(健啖家), 건망가(健忘家), 경제가(經世家), 경제가(經濟家), 고문가(古文家), 고방가(古方家), 고필가(古筆家), 교제가(交際家), 금자가(金字家), 기변가(機變家), 기서가(寄書家), 대방가(大方家), 덕교가(德敎家), 덕행가(德行家), 도규가(刀圭家), 도덕가(道德家), 독무가(獨舞家), 매명가(賣名家), 매문가(賣文家), 사무가(事務家), 사실가(寫實家), 상식가(常識家), 양옹가(養鷹家), 유산가(有產家)

예를 들면 ‘감여(堪輿)’는 ‘만물을 포용하여 신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하늘과 땅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는 요즘의 ‘풍수지리’와 같은 말이다. 풍수지리의 전문가를 풍수, 풍수쟁이, 지관이라 하는데 이를 ‘감여가’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위와 같은 예들은 이런 어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사용빈도가 낮은, 생소한 어휘들이다. 또 ‘사실가’는 현대어에서 ‘사실주의자’로 바뀌었다. 이처럼 현대어에서는 접미사가 바뀌어 사용되는 예도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가 사전의 뜻풀이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분류와 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268개 접미사 ‘-가(家)’의 단어 중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부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를 수치상으로 밝힌 바는 없었다. 접미사 ‘-가(家)’의 여러 의미들이 각각 몇 %의 비율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접미사 ‘-가(家)’는 사람과 직업명에 쓰이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서 좀더 나아가 그 의미와 쓰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접미사 ‘-가(家)’의 의미 중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131단어로, 전체 단어 중 49%를 차지한다. 접미사 ‘-가(家)’는 전문성과 직업을 표시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그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78개 단어인 29%를 차지한다.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38개 단어로 14%를 차지한다.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21개 단어로 8%를 차지한다.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는 전문성이나 어떤 특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가 사용 단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접미사 ‘-가(家)’는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여 일가(一家)를 이루는 사람이나 직업명에 쓰임을 알 수 있다.

가(家) 접미사 특성	비율
[+전문성], [+직업]	49%
[+특성 소지]	29%
[+능숙]	14%
[+풍부함]	8%

접미사 ‘-가(家)’의 의미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람 관련 다른 접미사와의 교체 현상을 살핍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접미사 ‘-가(家)’와 ‘-인(人)’이 특별한 의미 차이 없이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

와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家)’와 ‘-인(人)’이 특별한 의미 차이 없이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는 정치가, 예술가, 문학가 등등이다.

(7) 정치가/정치인, 예술가/예술인, 문학가/문학인

반면 사전 미등재어이지만 ‘-가(家)’와 ‘-인(人)’이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차츰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와 전문인의 경우, 전문가는 사전 등재어이다. 그러나 전문인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은 쓰임이 활발한 편이다. 또 ‘경영인’은 사전 등재어이지만 ‘경영가’는 미등재어이다. 그런데 요즘 경영가란 단어의 쓰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 (8) 전문인 - 방송영상전문인 자격증 취득, 유엔 국제기구 전문인 양성, 철도 전문인 연수기관,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전문인 선교 전략, 한국애견협회 개 혈통서 질문입니다. 전문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 절염치료를 전문인 병원을 추천해주세요, 보험전문인 양성, 전문인 무료컨설팅
- (9) 경영인 -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경영자 -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관.

경영가(사전 미등재어) - 기업경영가, 성공한 경영가, 불멸의 해양경영가 장보고, 부동산 경영가 협회, 예술경영가

접미사 ‘-가(家)’와 ‘-인(人)’이 교체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음악가/음악인, 서예가/서예인, 감정가/감정인, 경제가/경제인, 법률가/법률인’ 등등이 그 예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음악가’와 ‘음악인’이다. 음악가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에는 작곡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등이 있다.’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다. 음악인은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음악가는 음악의 전문가이지만 음악인은 비전문가이면서 음악을 즐기는 애호가까지도 포함

된다. 음악인은 음악가와 음악 애호가를 포함하는 광의의 용법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예가 ‘서예가/서예인, 감정가/감정인’ 등등이 있다. 감정가는 ‘감정을 잘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을 하는 사람’이며, 법률 용어로 쓰일 때는 ‘법원의 명령으로 그 감정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하고 ‘법률인’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일상어로 쓰일 때, ‘-인(人)’은 비전문가이지만 애호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람 관련 접미사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보이고 있다. ‘경제가’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재물을 절약하며 살림을 규모 있게 잘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사람/경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이윤을 꾀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상.’이다. 즉 경제가는 경제의 학자와 실무 경영인이 포함되지만 경제인에는 경제학자는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와 ‘-자(者)’가 교체되어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家)’와 ‘-자(者)’가 교체되어 쓰일 때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약간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家)’와 ‘-자(者)’가 교체되어도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는 ‘문학가/문학자, 연구가/연구자, 철학자/철학자, 기업가/기업자, 권력가/권력자’ 등등이다.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가(家)’는 단체의 집단성이, ‘-자(者)’는 각 개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가(家)’와 ‘-자(者)’가 교체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교육가/교육자, 평론가/평론자’ 등이 있다. ‘교육가’는 ‘교육이나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자’는 ‘교원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가는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교육이나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서점이나 학교 급식업의 종사자도 교육가에 포함되지만 교육자는 아니다. ‘-가(家)’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

지만 ‘-자(者)’는 좀더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한다.

(10) ① 설정단계 - 처음에 집 가(家)이었는데 대가(大家), 백가(百家)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학문, 기예 등에 뛰어난 사람의 의미가 형성됨

② 고정단계 - 단체, 집단의 의미가 가미되기 시작함

③ 확장단계 - 전문가(專門家). -자(者)보다 더 전문적이란 의미로 확장됨

3.2. ‘-자(者)’의 특성과 의미

사람 관련 접미사 중 의미변동과 생산성의 변화가 큰 것 중의 하나가 ‘-자(者)’이다. ‘-자(者)’의 한자 훈이 ‘놈’이란 비칭이어서 ‘사람 자’로 바꿔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자(者)’가 갑골문에서 처음 쓰일 때는 사람과 관련된 의미가 없었는데 후대에 사람과 관련된 의미가 추가된 것이다. 놈 자(者)의 갑골문은 ‘장작 더미’를 나타낸 그림 밑에, ‘불꽃’과 불 화(火)자 모양이 합쳐진 글자이라고 말한다.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장작이 타다’인데 나중에 본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이나 일을 가리키는 ‘것’, 장소를 이르는 ‘곳’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했다. 박홍균(2005)에서도 자(者)는 솥에 콩을 넣고 삶는 모습을 본따 만들 글자인데 이후 사람이란 의미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다고 했다. 갑골문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의미가 없었고, 그 이후에 사람과 관련이 되기 시작했으며, 국어에서는 ‘-자(者)’의 훈인 ‘놈’에서 연유하여 비칭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중국어의 한자에서는 비하의 의미가 없음을 중국어 사전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 A)

[조사]

2) 강식진(1996:3370-1), 진명 중한대사전, 진명출판사.

① 자. 것. [형용사나 동사 또는 형용사구나 동사구 뒤에 쓰여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동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킴]

强者; 강자

老者; 늙은이

作者; 작자

讀者; 독자

符合標準者; 표준에 부합되는 자[것]

我們要尊重作者的創作。- 우리는 작가의 창작을 존중해야 한다.

編輯收到了一封讀者來信。- 편집자는 독자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她是這次競爭的勝利者。- 그녀는 이번 경쟁의 승리자다.

這位老者德高望重。- 이 노인은 덕성과 명망이 높다.

② 자. ['工作'나 '主義' 뒤에 쓰여 그것에 종사하거나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을 가리킴]

文藝工作者; 문예 종사자

民主主義者; 민주주의자

在我看來他是个民主主義者而已。- 내가 보기에 그는 민주주의자일 뿐이다.

她是堅定的共產主義者。- 그녀는 확고한 공산주의자다.

她是舞蹈愛好者。- 그녀는 무용 애호가다.

我是一名文藝工作者。- 나는 문예 종사자다.

③ 【문어】 자. 가지. [수사(數詞) 뒤에 쓰여 앞서 말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킴]

此四者天下之窮民; 이 4자는[네 부류의 사람들] 천하의 (가장) 가난한 백성이다
兩者缺一不可; 양자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事業和家庭, 兩者缺一不可。- 사업과 가정,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事業、家庭之中, 男性更注重前者。- 사업, 가정 중 남성은 전자를 더욱 중시한다.

事業、家庭之中, 女性更注重后者。- 사업, 가정 중 여성은 후자를 더욱 중시한다.

魚和熊掌, 兩者不可兼得。- 물고기와 곰발바닥, 양자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
二者必居其一。- 필경 둘 중 하나다.

二者較然不同。- 양자는 현저하게 다르다.

二者并无別異。- 양자는 아무런 차별도 없다.

④ 【문어】 …란. …라는 것은. [날말이나 구 뒤에 쓰여 어감상의 정지를 나타냄]

風者, 空氣流動而成。- 바람이란 공기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云者, 水滴凝聚而成。- 구름이란 물방울이 응집하여 이루어진다.

雨者, 空中水滴飽和而掉落。- 비란 공중의 물방울이 포화하여 떨어진다.

雷者, 云塊撞擊而轟鳴。- 천둥이란 구름 덩어리가 부딪쳐 울린다.

三光者, 日月星 - 삼광이라는 것은 해·달·별이다

⑤ 구말(句末)에 쓰여 희망이나 명령의 어기(語氣)를 나타냄. [조기 백화(早期白話)에 많이 쓰임]

路上小心在意者!; 도중에 조심하시오!

且慢者!; 잠깐!

⑥ 【문어】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때에’ 라는 뜻을 나타냄.

近者; 근자에

昔者十日并出; 옛적에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떴었다

— B)

[대사] 이. 이것. [‘這’와 같은 뜻으로 고시(古詩)나 조기 백화(早期白話)에 많이 쓰임]

者邊; 【초기백화】 이쪽.

者番; 【초기백화】 이번. 금번.

無事過者一夏; 아무 일없이 이 여름을 보냈다

국어와 쓰임이 다른 단어는 ‘老者(늙은이, 노인), 作者(작자, 작가)’이다. 이외에는 국어의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者)’의 의미와 용법에 비칭의 의미가 없다. 국어의 사람 관련 접미사 ‘-자(者)’에 비칭의 의미가 있는 것은 국어만의 용법인데 ‘-자(者)’의 훈인 ‘놈’ 때문이다. 만약 ‘놈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 자’라고 했으면 비칭이라고 언중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者)’의 훈을 ‘사람 자’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놈’이 중세국어에서는 비칭이 아닌 평칭으로도 쓰였다. ‘놈’이 사람의 평칭으로 쓰인 예와 남자의 비칭으로 쓰인 예를 이 조어사전³⁾에서 볼 수 있다.

(12) 사람의 평칭

떠디 몬훤노미 하나라(訓諺)

흔 노미 큰 象 ㅌ고(月十 28)

者는 노미라(訓諺)

늘근노미 지비로다(老夫家)(杜초七 6)

모딘 놈이 말은(月十七 76)

어린 놈의 알외기 어려움이(愚夫)(小諺五 50)

叛흔는 노몰(謀亂之徒)(龍 64)

놈 자(者)(石千 42)

(13) 남자의 비칭

千戶 | 楊氏 ㅸ께 나사간대 구지조디 목 버힐 노마 내 남진과 盟誓호니 天地鬼

神이 아르시느니라(三강烈 22)

그놈들이 므엇ㅎ리오(老上 24)

17세기국어사전⁴⁾ 상권에서는 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역어유해, 어록해 중간본,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의 자료에 나오는 남자의 비칭 예문을 보이고 있다. ‘놈’이 사람의 평칭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17세기에는 ‘놈’이 남자의 비칭으로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사전에서 ‘자(者)’의 뜻풀이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거나 일상적으로 이를 때 쓴다.”로 되어 있다. ‘놈’은 이미 17세기에 비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者)’가 비칭이 아니면서 사람에 쓰일 때라도 자연스럽게 비칭의 의미와 연관을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 관련 접미사 ‘-자(者)’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약 223개이다. 이들 단어를 범주별로 분류하면 법률 관련 단어가 98단어로 전체 단어의 44%를 차지하고, 약자나 주변인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59단어로 26.5%이며, 학문 관련 단어는 25단어로 11%이다. 중립적 의미의 단어는

3) 유창돈(2000:159)에 ‘놈’이 평칭과 비칭으로 쓰인 예문을 볼 수 있다.

4) 홍윤표 외(1995상:534)에 비칭의 예를 보이고 있다.

25단어로 11%, 기득권 부류의 단어는 13단어로 6%, 체육 관련 단어는 3개로 1%이다. 이 중에서 약자나 주변인, 기득권의 범주는 명확한 분류라고 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러한 분류에 수긍할 때 ‘-자(者)’는 법률 관련 어휘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약자나 주변인, 부정적 의미의 어휘에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者)’는 법률 용어와 약자 관련어에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者)’를 사용하지 않고 ‘-인(人)’을 사용하려는 언중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자(者) 접미사 특성	비율
[+법률]	44%
[+약자]	26.5%
[+학문]	11%
[+중립적 의미]	11%
[+기득권]	6%
[+체육]	1%

(14) 법률 관련 어휘⁵⁾

가맹자, 가입자, 가해자, 감독권자, 감독의무자, 감독자, 감시자, 감염자, 강탈자, 개발자, 개척자, 개혁자, 거래자, 거주자, 건립자, 건설업자, 건축자, 결정권자, 경영자, 고리대금업자, 고발자, 고소권자, 고안자, 고용자, 공급자, 공모자, 공범자, 공산주의자, 공유자, 공직자, 관람자, 관리자, 관찰자, 교란자, 교직자, 구급자, 구매자, 구직자, 국가유공자, 국수주의자, 권고자, 권력자, 권리자, 권위자, 귀화자, 귀환자, 극단론자, 근로자, 금치산자, 기부자, 기술자, 내방자, 내조자, 내통자, 노동자, 담당자, 담보권자, 담보자, 당사자, 당직자, 대금업자, 동반자,

5) 법률 관련 어휘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경영자, 고용자, 관리자, 기술자’ 등등은 법률 관련 어휘라기보다는 기득권 관련 어휘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법률 관련 어휘로 분류한 것은 법적인 문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라고 생각하여 넓은 의미의 법률 관련 어휘로 분류하였다. 이하의 분류에서도 이러한 이론은 있을 수 있다.

동석자, 동행자, 망명자, 미결수용자, 발기자, 발령자, 발명자, 발송자, 발신자, 발안자, 발주자, 발행자, 발현자, 범법자, 범죄자, 범행자, 배우자, 병균보유자, 병사자, 병약자, 보관자, 보균자, 보유자, 보장자, 보조자, 보존자, 보행자, 보험계약자, 보험자, 보호자, 복무자, 봉급생활자, 부담자, 부채자, 사용자, 수익자, 수탁자, 운전자, 의무자, 전과자, 채무자, 채권자, 책임자, 친권자, 파산자, 피의자, 피해자

(15) 약자, 주변인, 부정적 의미 어휘

결식자, 결석자, 경작자, 경쟁자, 고령자, 근로자, 기아자, 기회주의자, 낙선자, 낙오자, 낭비자, 노동자, 노숙자, 노약자, 도망자, 도박자, 도발자, 도살업자, 도주자, 도피자, 독학자, 동성애자, 맹신자, 멸망자, 몽유병자, 무능력자, 무법자, 무직자, 문맹자, 밑수업자, 반대자, 반동자, 방랑자, 방조자, 방해자, 방화자, 배반자, 배신자, 배척자, 배후자, 범법자, 범죄자, 범행자, 변질자, 변질자, 별거자, 부랑자, 부상자, 부역자, 부적격자, 부채자, 분실자, 불구자, 불량자, 불신자, 불합격자, 비관론자, 실업자, 연로자, 파산자

(16) 학문관련 어휘

(국문, 영문, 불문, 중문, 경영, 경제, 건축, 금속 등등의 학과)학자, (물리, 생물, 식물, 화, 조류, 어류 등등)학자, 계몽주의자, 고고학자, 공학자, 과학자, 관념론자, 교육자, 교육학자, 퀘변론자, 금융주의자, 낙관론자, 낙천주의자, 논쟁자, 동물학자, 미생물학자, 민법학자, 발굴자, 번역자, 범죄학자, 법률학자, 법학자, 병리학자, 불가론자, 수학자,

(17) 중립적 의미 어휘

(방송, 신문)기자, 경험자, 공산주의자, 낭독자, 도전자, 동거자, 동승자, 동업자, 동조자, 득점자, 득표자, 면회자, 무신론자, 미등록자, 미성년자, 미필자, 미혼자, 미혼자, 박애주의자, 반려자, 반전론자, 반주자, 방청자, 배우자, 사용자, 신자, 운전자, 해설자

(18) 기득권 부류 어휘

강자, 기능보유자, 기술자, 기자, 기증자, 기탁자, 기혼자, 낙찰자, 능력자, 무역업자-무역인, 방적업자, 보험업자, 부자, 수익자, 수탁자, 투자자

(19) 체육 관련 어휘

강타자, 대주자, 대타자

그런데 사람 관련 접미사 ‘-자(者)’가 사용되는 단어들의 생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휘 사용의 비중이 높은 법률 용어는 주로 근대 이후에 생성된 단어들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대의 법 관련 제도가 개화기 이후에 정비,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어휘들도 개화기 이후에 생성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약자와 주변인 관련 어휘들도 근대에 들어서 생성된 어휘로 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원이 오래된 어휘의 범주는 학문 관련 어휘라고 판단된다.

물론 학문 관련 어휘들의 상당 부분도 근대 이후에 생성된 어휘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그 근간은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가 중심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어휘들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 국어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았을 것이다.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는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여기에 ‘-자(者)’ 접미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 즉 학자의 분류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학자, 학문 관련 접미사 ‘-자(者)’가 사용되는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의미가 접미사 ‘-자(者)’의 핵심의미가 되고 여기에 다른 의미들이 파생되어 확장되기 시작했다.

즉 접미사 ‘-자(者)’가 최초에는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에 쓰기 시작하는 설정단계가 있다가 그 이후에 학문 관련 신어에 사용되면서 접미사 ‘-자(者)’의 의미가 고정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고정단계에서 접미사 ‘-자(者)’는 비하의 의미가 없었다. 비하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관련 어휘에도 접미사 ‘-자(者)’가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접미사 ‘-자(者)’의 의미에 ‘그러한 개인’이란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한다. 즉 ‘결정권자’라고 하면 ‘결정권이 있는 개인’이란 의미가 된다. 또 ‘경영자, 경영가’에서도 ‘경영가’는 경영에 관한, 경영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지칭하게 되고, ‘경영자’는 경영을 하는 개인을 지칭하게 되었다.

접미사 ‘-자(者)’가 설정단계와 고정단계를 거치면서 ‘-자(者)’의 훈이 ‘놈 자’라는 비하의 의미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건축업자’라고 하게 되었고, ‘업자’ 하면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지칭한 어휘로 굳어지게 되었다. ‘업자’가 비하의 의미가 있는데 업자가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밀수, 도박’ 등에 쓰임으로 인해 ‘밀수업자, 도박업자’하면 더욱더 부정적, 비하의 의미가 강화하게 된다.

여기에도 접미사 ‘-자(者)’가 결합하는 어기가 약자나 주변인 등 주로 힘없는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어기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장애자, 실업자, 낙오자, 노숙자’ 등과 같은 어휘와 접미사 ‘-자(者)’가 결합하는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접미사 ‘-자(者)’의 의미가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접미사 ‘-자(者)’의 의미가 [+전문가], [+개인]의 의미에서 [+비하]의 의미로 의미의 비중이 이동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 법률 관련 어휘에서도 ‘-자(者)’를 ‘-인(人)’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발인, 고소인, 고용인, 관리인, 권고인, 근로인, 발기인, 발송인, 발신인, 발행인, 범죄인, 보증인, 보행인, 보험계약인, 양도인, 청구인, 피고인’ 등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접미사 ‘-자(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언중의 의식 변화에 따라 ‘당선자’라고 하는 ‘당선된 개인’의 의미를 ‘당선인’으로 바꾸려는 현상을 보인다.⁶⁾

접미사 ‘-자(者)’와 ‘-인(人)’의 교체 현상은 접미사 ‘-인(人)’에서 살펴기로 한다.

(20) -자(者)

- ① 설정단계 - 인자(仁者), 현자(賢者), 학자(學者) - 사람을 가리킴
- ② 고정단계 - 학문 관련 어휘 신어 형성 + 개인 의미 / 일, 물건, 장소를 가리킴

6) 접미사 ‘인’은 개인을 지칭하는 접미사 ‘자’보다 더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은 접미사 ‘인’에서 논의한다.

③ 확장단계 - 비하 의미 추가 - 업자(전문직업군), 밀수업자, 도박업자
주변인(장애자, 실업자, 낙오자, 노숙자) -> '인'으로 대체

3.3. '-인(人)'의 특성과 의미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 -자(者), -인(人)' 중 '-자(者)'가 결합된 단어가 대략 223단어로 가장 많고, '-가(家)'가 약 197단어이고, '-인(人)'이 약 150단어로, '-인(人)'의 비중이 가장 약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접미사 '-자(者)'를 '-인(人)'으로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者)'보다 '-인(人)'이 단어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어사전에서 '-인(人)'의 뜻풀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21)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원시인, 종교인, 한국인, 감시인, 그리스 인, 프랑스 인.

'-인'은 접미사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다음에서는 띄어 쓰거나 붙여 쓸 수 있다.

접미사 '-인(人)'의 의미 특성에 따라 그 쓰임을 보면 약자나 주변인층과 관련된 어휘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립적 의미의 어휘가 27%, 법률 어휘가 23%, 전문가 어휘가 21%, 약자, 주변인 관련 어휘가 17%, 기득권 관련 어휘가 12%이었다. 사람 관련 접미사 '-인(人)'은 '-가(家), -자(者)'보다 가치중립적인 의미⁷⁾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7)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전문가 어휘, 법률 어휘, 약자 어휘, 기득권 어휘로 분류할 수 없는 단어를 가치중립적 의미의 어휘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접미사 '-인(人)'의 의미 분류의 빈도수의 순위를 바꿀 정도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人) 접미사 특성	비율
중립적 어휘	27%
법률 어휘	23%
전문가 어휘	21%
약자, 주변인층 어휘	17%
기득권층 어휘	12%

‘-가(家)’는 [+전문성], [+직업적], [+능력]의 의미가 있으면서 전문가의 집단을 형성하는 [+집단성]의 의미가 있다. ‘-자(者)’는 [+전문성], [+학자]의 의미일 때는 [+집단성]의 의미가 있지만 그 외의 의미일 때는 집단의 의미가 아닌 그 사람만 지칭하는 [+개인]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비해 ‘-인(人)’은 [+중립성]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인(人)’이 전문가를 지칭할 때가 있는데 ‘-가(家), -자(者)’의 전문가와는 단어의 범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인(人)’의 경우도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 그 전문성의 정도나 분야가 [+숙달]과 [+기능]이 강조된 전문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家), -자(者)’ 접미사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경매, 도매, 관리, 달인 등등의 전문인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연마할 때 끊임없이 반복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전문인의 경우이다. 그러나 ‘-자(者), -가(家)’의 전문인은 [+연구]를 통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전문인이 많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경매인, 도매인, 법조인, 변호인, 경영인, 관리인, 달인, 방송인, 상공인, 외교인, 지배인, 경제인, 경호인, 도인, 산악인, 역학인, 연극인, 연기인, 연예인, 영화인, 예능인, 예술인, 음악인

(23) 학자, (물리, 생물, 식물, 화, 조류, 어류 등등)학자, 계몽주의자, 고고학자, 공학자, 과학자, 관념론자, 교육자, 교육학자, 퀘변론자, 금융주의자, 낙관론자, 낙천주의자, 논쟁자, 동물학자, 미생물학자, 민법학자, 발굴자, 번역자, 범죄학자, 법률학자, 법학자, 병리학자, 불가론자, 수학자, 연구자

(24) 건축가, 교육가, 극작가, 기고가, 기업가, 작가, 등산가, 만화가, 문

법가, 발명가, 법률가, 비평가, 사상가, 서예가, 설계가, 소설가, 여행가, 역사가, 연주가, 예술가, 정치가, 평론가

접미사 ‘-인(人)’은 전문가를 포함하지만 비전문가, 동호인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자(者), -가(家)’와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다. ‘음악가/음악인, 서예가/서예인, 예술가/예술인’에서 ‘-가(家)’는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친 전문가 집단을 지칭하지만 ‘-인(人)’은 전문가로 공인받지는 않았지만 즐기는 동호인까지도 포함된다.

(25) -인(人)

- ① 설정단계 - 성인≠성자(聖者). 현인(賢人), 위인(爲人)- 인품, 성질, 타인(他人) - 체육인 중립적 의미 출판인
- ② 고정단계 - 사람의 의미
- ③ 확장단계 -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비전문가까지도 포함(예. 음악인 - 전문 음악가뿐만 아니라 음악 애호가도 음악인의 범주에 포함됨. 그러나 음악가라고 하면 음악 전문가만을 의미하고, 음악 애호가는 포함되지 않음)

4. 마무리

지금까지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 -자(者), -인(人)’의 의미특성과 현대어에서의 생산성과 언어의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마무리로 하고자 한다.

접미사 ‘-가(家)’가 [+전문성], [+직업] / [+능력] / [+풍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한자 가(家)의 형성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가(家)’가 [+전문성]을 나타낼 때는 전문가 집단의 집단성을 전제로 한다. 접미사 가(家)의 의미 중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전체 단어 중 4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그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29%를 차지한다.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14%를 차지한다.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인 경우는 8%를 차지한다. 사람 관련 접미사 가(家)는 전문성이나 어떤 특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가 사용 단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접미사 가(家)는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여 일가(一家)를 이루는 사람이나 직업명에 쓰임을 알 수 있다.

접미사 ‘자(者)’는 인자(仁者), 학자(學者), 현자(賢者)와 같은 단어에서 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부류의 단어에 쓰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법률 관련 단어와 약자, 주변인 관련 범주의 단어로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현대어에서는 법률 관련 단어가 44%, 약자 관련 단어가 26.5%, 학자 관련 단어가 11%, 중립적 의미의 단어가 11%, 기득권 관련 단어가 6%, 체육 관련어가 1%를 차지한다. ‘-자’는 전문가나 관련자의 집단성보다는 사람 개인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접미사 ‘-자(者)’의 훈이 ‘놈 자’이어서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하여 접미사 ‘-인(人)’으로 바뀌려는 경향이 있으며, 훈을 ‘사람 인’으로 바꾸고 있다.

접미사 ‘-인(人)’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동호인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쓰인다. 사람 관련 접미사에서는 ‘-자(者), -인(人)’의 상위 범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접미사 ‘-인(人)’은 중립적 의미의 어휘가 27%, 법률 어휘가 23%, 전문가 어휘가 21%, 약자, 주변인 관련 어휘가 17%, 기득권 관련 어휘가 12%이었다. 사람 관련 접미사 ‘-인(人)’은 ‘가(家), 자(者)’보다 가치중립적인 의미가 강하다.

〈참고문헌〉

-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용한(1996)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어소의 의미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 나은미(2005) 파생 접미사의 의미 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제28호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 연구, 태학사
- 박홍균(2005) 350자로 2200자를 깨치는 원리한자, 이비컴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유창돈(2000)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이관식(1997) 국어 인칭접미사의 어원연구, 어문연구 95, 113-137,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 홍윤표 외(1995) 17세기국어사전, 태학사

ABSTRACT

A Study on Person-suffixes in Chinese character

Seo, Jeong-seop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aning traits of [person]-suffixes such as ‘-ga’, ‘-ja’, and ‘-in’. When ‘-ga’ represents [+speciality], it is premised on a group of specialists. Suffix ‘-ga’ is used in words to mean 49 percent of [+speciality], 14 percent of [+ability], 8 percent of [+abundance].

Suffix ‘-ja’ started to be used in words such as injja(仁者), hakja(學者), hyeonja(賢者). It is used in modern language in terms related to 44 percent of law, 26.5 percent of the weak, 11 percent of scholar, 11 percent of neutral meaning, 6 percent of vested rights, and 1 percent of physical training. The meaning of suffix ‘-ja’ is a chap (nom), which is considered to have the meaning of being disparaged.

Suffix ‘-in’ is used extensively representing laymen who share the same interest as well as specialists. It is used in terms related to 27

percent of neutral meaning, 23 percent of law, 21 percent of specialist, 17 percent of the weak, marginal man, and 12 percent of vested rights. ‘-In’, [Person]-suffixes, shows more neutral meaning in value than ‘-ga’ and ‘-ja’.

Key words : Person-suffixes(사람 관련 접미사), [+speciality](+전문성), [+ability](+능력), [+abundance](+풍부), -ga(가(家)), -ja(자(者)), -in(인(人))

이 논문은 2009년 1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